

우리의 **국제 사역**

큰은혜교회

최정선 목사 (한국)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박경복 목사 (일본)

아가페교회

윤상현 선교사 (필리핀)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ESTEFANI	CAMILA	EMELY
GENESIS	NANCY	JENNSY	GAEL
JOSUE	ROBERTO	LIA	OSCAR
LUIS	YEFERSON	ORIANA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홀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St. 제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솔라노 지역 바카빌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랑스러운 교회

주일 예배 시간: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교육관

MISSION STATEMENT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ikos Church

소그룹 교회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제자삼는 교회



▶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교육관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임목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육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Sam Kim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제 5호 27권		Vol. 5 No.27		7.5.2026	
여는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담임 목사	
말씀		베드로의 첫 설교		담임 목사	
Sermon		사도행전 2장 14~42절		Senior Pastor	
합심 기도		United Prayer		다같이	
성찬		보혈을 지나		다같이	
Communion				Together	
봉헌및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Offering				Together	
광고		Announcements		담임 목사	
Senior Pastor					
* 찬양		삼중 축복		다같이	
Blessing Song				Together	
축도		Benediction		담임 목사	
Sen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기도 순서

	7/5(연합)	7/12(부흥회)	7/19	7/26	8/2(연합)
1부	—	—	임성호	김보라	—
2부	—	—	우빛나래	장승현	김종길

교회소식

ANNOUNCEMENTS

1. 성찬 예배/예배 집중 데이

이번 주는 성찬 주일/예배 집중 데이 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성령 부흥 성회

주제: “성령님과 동행하라”
일시: 7월 10일(금) ~ 12일(주일)
강사: 장창영 목사 (빛과소금의 교회)
장소: 본당

3. 결혼 예식

김종길 집사님·김영미 권사님의 차녀 김보미 성도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일시: 7월 11일(토) 오후 5시
장소: Vellano Estate By Wedgewood Weddings
(2441 Vellano Club Dr, Chino Hills, CA 91709)

4. 순복음파소교회 담임목사 은퇴 및 취임예배

일시: 7월 18일(토) 오후 12시
장소: 순복음 파소 교회 (3402 Oak St, Paso Robles, CA 93446)

5. 7~8월 성경 읽기 프로젝트

범위: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모두 성경 읽기 표에 체크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월 생일	9일	진영아 성도	26일	김수경 성도
	10일	박소려 집사	31일	주보배 사모
	17일	이기봉 목사		

7월 성찬위원

김용현, 김아론, 김대환

성령 부흥 성회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

주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일시: 7월 6일(월) ~ 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교육관 및 유튜브(Youtube) Live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7.5.2026

본질과 존재

어느 날 문득 퇴근길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다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불쑥 고개를 들 때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잊고 지내던 ‘본질과 존재’라는 철학적 화두가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두 단어는 사실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가장 오래된 이정표입니다.

<본질(Essence)의 세계 “너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관점은 ‘본질이 존재에 앞선다’고 말합니다. 본질(Essence)이란 어떤 사물이나 존재가 ‘그것이 되게끔 하는 고유한 속성이나 목적’을 뜻합니다. 여기에 잘 만들어진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의자의 본질은 ‘사람이 편하게 앉는 것’입니다. 만약 다리가 부러져 앉을 수 없게 된다면, 그 의자는 존 재할지언정 의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이 관점을 인간에게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본질을 부여받았으며, 그것을 찾아내고 완성하는 것이 삶의 정답이라고 믿게 됩니다. “좋은 학생이 되어야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해라” 같은 말들은 모두 우리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존재(Being)의 선언 “정해진 정답은 없다”>

하지만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 판도를 뒤집어 엮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에게는 실존(Existence, 존재)이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의자나 스마트폰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되어 세상에 나온 기성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Being)일 뿐입니다. 태어날 때 ‘내 인생의 설명서’를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존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먼저 세상에 ‘존재’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나만의 ‘본질’을 채워나가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장 폴 사르트르 (Jean-Paul Sartre)는 “인간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질과 존재의 연합>

우리가 삶에서 자주 불행을 느끼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본질과 존재 사이에서 만날 수 없는 평행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본질은 나를 세상 이 정해놓은 혹은 스스로 줬아매게 만들어 감춰 있는 듯하게 만들고, 존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따라 방탕하게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어찌할바 몰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과 존재는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이 필요하고 본질이 있으므로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 되고, 이 본질 위에 나의 자유로 존재를 채워갈 때 나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